

곡성 고향사랑기부 소아청소년과, 이용객 만족도 '최상'

응답자 48% '가까운 거리'에 만족 답변...상시 운영 희망 수액실 등 서비스 질적 향상 원해...전문의 고용 모금 추진

소아과 불모지였던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 옥과통합보건지소 소아청소년과 이용객 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소아청소년과 출장 진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거리가 가깝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고 '의사가 친절하다'는 점에 만족하는 사람이 뒤

를 이었다. 옥과에 소아청소년과가 생기기 전, 곡성 주민들은 아이가 아프면 4시간 원정진료를 떠나야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집 앞 소아과를 찾아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응답자 4명 중 3명(77%)은 '학교, 어린이집 알림장'이나 '지인' 등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출장진료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들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 전인 '오전 9-10시'에 소아과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통해 조성한 곡성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이를 진찰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

답자의 절반 이상이 '상시진료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주 2회만 소아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일반진료와 백신접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액실 운영이나 중이염치료기 구비 등 의료장비를 추가해 진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바라는 의견도 약 30%로 컸다.

곡성군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아과 출장진료를 더욱 개선하고 시군2 추진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래 곡성군수 역시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소아과 운영과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가자"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추진, '시즌1 소아청소년과 출장진료'는 모금목표액 조기 달성 후 지난 8월27일부터 주 2회 출장진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시즌2 소아과 상시진료(매주 월-금 9-18시)'를 목표로 전문의 고용을 위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하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지역 농업인 한 자리에”...구례 농업인의 날 성료

우수농업인 대상에 채준석씨...4-H본부 장학금 전달도

구례 농업인들이 구례군 농업인의 날에 한 데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구례군은 13일 “지난 11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10회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례군의 13개 농업인 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농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구례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행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고의 영예인 ‘우수농업인 대상’은 시설원에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채준석 씨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도 농업인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5명의 유공

자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구례군 4-H 본부는 우수한 학생 4-H 회원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이어진 2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읍면 노래자랑, 협동공 튀기기, 새끼줄 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는 참석자들 사이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읍면 농작업복 패션쇼가 특별히 마련돼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작업복을 착용하고 무대에 올라 농업의 다양한 분야와 특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농업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변동, 각종 재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켜주는 농업인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군, 농업인 한마당 대회 ‘성황’

모범농업인 시상·체육대회·노래자랑 등 열기 후끈

담양군이 제2회 농업인 한마당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업회의소에서 주관해 진행한 이날 행사는 제2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담양군 농업인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모범농업인 시상,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는 농업인이 주축이 돼 같고달은 장기를 선보이며 식전 열기를 달궜으며 대슬람은 담양쌀의 14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수상을 기념한 베타곡 시연 등으로 개최식을 재웠

다. 2부에서는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호응으로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 잦은 비와 무더위, 병충해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농업인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농업을 꽃피어 이어가는 농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고 모범적인 경력을 실천한 농업인들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총 5개 부문 11인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주요 수상 내역은 ▲우수농업인 무정면 김재열, 담양읍 김금남 ▲선도농업인 국회의원상 대덕면 이미행, 고서면 강재순 ▲모범농업인 군수상 (농촌발전)대전면 박연순, (식량작물)수북면 김일호, (원예과수)창평면 이상철, (축산)가사문학면 임철우, (청년농업인)월산면 김성훈 ▲모범농업인 담양군외장상 (농촌발전)수북면 김병두, (식량작물)보산면 정경기, (원예과수)무정면 서지수, (원예과수)용면 이용철, (축산)가사문학면 유일수, (청년농업인)금성면 정선호 등이다.

/담양=정승근 기자

장성군, 매력 탐방 ‘팸투어’ 진행

인플루언서·블로거 등 초청...주요 관광명소 소개

장성군은 13일 “오는 15일까지 ‘장성 여행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팸투어’는 여행가, 블로거 등을 초청해 관광, 설명회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번 팸투어는 총 2차로 나눠 운영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1차 팸투어에선 타지역에서 온 10여명의 SNS 인플루언서들이 함께했다. 장

성역 ‘여행자플랫폼’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립지 축령산 편백숲, 장성호 수변길과 마락마을 등을 1박2일간 둘러봤다. 여행 내용은 SNS를 통해 공유됐다.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계획된 2차 팸투어는 파워블로거 20여명을 초청해 자유여행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블로거들은 흥길동테마파크, 장성호관

광지 등 여행지와 장성맛집, 카페 등을 방문하고 블로그에 후기를 남긴다.

팸투어에 참여한 인플루언서 ‘심프로(simpro)’는 “축령산, 장성호 등 장성의 매력이 담백 담긴 관광명소를 방문하며 큰 감동을 느꼈다”며 “이번 팸투어를 인연 삼아 앞으로도 종종 장성으로 여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제3회 전남체전, 제3회 장애인체전 개최를 맞아 2025년에 ‘장성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관광 콘텐츠, 여행코스 개발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 펫토피아’ 반려동물 문화 한마당

16일 오전그린광장서 명랑운동회·미로체험 등 다채

순천시는 13일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오전그린광장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024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천 펫토피아’란 주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을 줄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교류의 장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올바른 산책’이라는 주제로 이용중 강사의 토크쇼와 전문가 프리스비 시범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반려동물 인식표와 유전자 검사권도 배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미로체험, 펫마사지 테라피, 반려동물 교감캠프, 독 피트니스,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에어바운스, 반려동물 수제간식 만들기, 캐리커처 등이 운영된다. 반려동물 관련 플라켓도 함께 열린다.

또한 어린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사 프리스비 시범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각각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을 시상할 예정이며, 선정된 작품은 반려동물문화센터 1층 로비에 전시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4 반려동물 문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순천에서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전남 최초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개관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펫터치 교육 등 다양한 반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센터 2층 유기·반려동물 공공진료소에서는 구조된 유기동물의 진료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동물자원과 반려산업팀(061-749-8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기 기자

화순 ‘내평리 길쌈노래’ 민속공연 시연

16일 내평리 마을 일원...무형유산 보존·전승

화순군은 13일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내평리 길쌈마루 전수관과 마을 일원에서 내평리 길쌈노래 민속공연(사진)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평리 길쌈노래는 화순군 향토

문화유산 제6호로 지정돼 화순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이다. 특히 내평리 길쌈노래는 2015년 전남민속예술축제에서 화순군 대표로 참가해 대상을 받았고, 전남도 대표로 출전한 2016년 전국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무형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은 주민들이 직접 모종을 심고 키운 무명밭에서 시연될 예정으로 무형유산을 보존·전승하려는 지역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문화예술과(061-379-3177)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보성군,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호응’

예산 1억2천만원 조기 소진...4천만원 추가 확보

보성군이 민선 7-8기 군수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총 297명에게 518만 원, 의료비 1억 1천700여만원을 지원했다. 50여명은 수술 대기 중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청자 수가 62% (185명→297명), 의료비 지원 사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증가하며 예산 1억2천만원을 조기 소진했고 추가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사업의 인기에 부응해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을 중위 소득 120%에서 150%로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희망자는 인과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지참해 수술 전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의료비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그동안 일상생활의 불편을 참아왔지만 백내장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정말 살맛이 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성=임병연 기자